아기 울음소리 '광주 줄고 전남은 늘었다'

●통계청 '9월 인구동향'

출생아 수 광주 480·전남 689명 전년比 9명 ↓·21명 ↑

전국 3분기 출산율 0.76명으로 반등…12년 만에 최고치

9월 광주·전남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광주는 줄고 전남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48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89명)과 비교하면 9명 줄고 전남은 689명으로 같은 기간(668명)에 비해 21명이 증가했다.

올해 1-9월까지의 누계 출생아 수는 광주 4천549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4천774명)대비 4.7% 감소해 전국에서 강원(-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고 전남은 같은 기간 6천37명에서 6천185명으로 2.5% 증가했다.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은 광주는 0.72명으로 1년 전(0.66명)대비 0.05명 늘었고, 전남은 1.05명으로 지난해(0.97명)대비 0.08명 늘었다.

지난 9월 광주·전남 사망자 수는 2천340명(광주732·전남1천608)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여전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1천171명(광주252·전남919)이 자연 감소했다.

광주·전남의 결혼 건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의 9월 혼인 건수는 376건으로 작년 동월 308건보다 22% 늘어났고, 전남 역시 같은 기간 376건에서 474건으로 2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팬데믹 이후 혼인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3분기 합계출산율이 8년여만에 반등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천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523명(8.0%) 증가했으며 2012년 4분기(5천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 반등했다.

9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천428건(18.8%) 늘어난 1만5천368건이었고 3분기 혼인 건수도 5만1천706건으로 1년 전보다 1만3건(24.0%) 증가했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혼인이 지연됐다가 이후 몰려서 이뤄진 점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예상보다 다소 빨리 증가하면서 추계 시점보다 출산율이 빨리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지금 수준이 4분기까지 유지되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웃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합계출산율이 반등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호남권역 청창사, 동문포럼 '커넥트 데이' 개최

40여개사 스타트업 교류…노인복지시설 기부도

호남권역 청년창업가들이 새로운 혁신을 모색할 수 있는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27일 "전날 제주에서 제2회 호남권역 동문 네트워킹 행사인 '커넥트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지원과 창업코칭,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등을 일괄 지원하는 국내 대표 창업지원 사업이다.

호남권역 청창사 동문회는 지난해 초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에서 창립총회를 거쳐 연말에 제1회 호남권 동문포럼 커넥트 데이를 광주에서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포럼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창업사관학교 입교 및 동문기업 40개사가 참석해 광주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코스닥상장 성공사례 공유, 스타트업 간 협업방안 모색 등 네트워킹 교류, 제주소재 노인복지시설 기부 활동 등 ESG 실천의 장으로 확대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호남권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며 "동문기업 선후배들과 정보공유 및 상호교류가 지속 될 수 있도록 동문 네트워킹의 장을 스타트업 상생·협력의 모델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지난 26일 제주에서 열린 제2회 호남권역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 네트워킹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제공〉

여수산단 입주기업 사회공헌비 늘어

지난해 2022년 대비 크게 증가…공발협, 2023년 산업 동향·현황 조사

여수시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이하 공발협)가 2023년 산업 동향 및 각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사회공헌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발협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공장장협의회 소속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참여하지 못한 3개 기업을 제외한 35개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조사 결과 여수산단 입주기업 중 여수시에 본사를 둔 기업 비율은 36.9%(14개 기업),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47.4%(18개 기업)로 나타났다. 협력 업체 수는 4천769개, 외부작업자의 연간 출입 인원은 367만7천719명으로 집계됐다.

산단 내 상주인원은 남자 1만3천623명, 여자 694명 등 총 1만4천317명이며, 신규 채용 인원은 664명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직원의 지역별 거주분포는 여수시에 1만93명(2022년 대비 147명 증가), 순천 2천402명, 광양 323명, 전남권 외 지역은 1천158명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활동 현황에서는 사회공헌 담당 인원이 88명, 사회봉사 단체 수 106개, 사회봉사 활동 참여 인원 6천937명, 사회봉사 및 지원 비용은 174억5천9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공헌 비용은 2022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상반기 사회공헌백서 발표 토론회와 공발협 총회에서 지역지원금을 추가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김신 공발협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사회봉사 및 지원비용이 지난 2022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상반기 사회공헌백서 발표 토론회와 공발협 총회에서 지역지원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지원금을 포함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주은행, 과학 유튜버 '궤도' 초청 청년 문화 특강

창립 56주년 기념…인공지능 주제

광주은행은 최근 창립 56주년을 기념해 지역 소외계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특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광주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청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문화특강에는 유튜브 구독자 122만명을 보유한 유명 과학 유튜버 궤도를 초청해 "인공지능 AI, 어디까지 왔을까?"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만나 AI의 발전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유튜버 궤도는 특유의 쉬운 설명과 입담으로 과학을 쉽게 풀어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번 특강에 참석한 소외계층 및 청년들에게 AI를 포함한 신기술에 대한 과학적 사고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사회를 주도할 청년들에게 도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청년은 "평소 과학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과학이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분야라는 걸 느꼈다. 앞으로도 이런 강연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의 소외계층 및 청년들을 위해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129호)',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10호)',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 등을 운영하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부터 소년소녀·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년들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앞으로 진로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하나!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 유지하기
둘! 뽁뽁이,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셋! 내복, 무릎담요 등 온(溫)맵시 실천
청렴 가장 빛나는 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